



일주문

“불교음악 앞당겨 대중화” 서원

임오년을 푸는 불자 ③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 안병길 씨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광우 전국비구니회장은 비구니회 임원진과 함께 16일 오전 10시 신년하례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금정구 복지관장 취임
정여 범어사 재무 스님은 21일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념식에서 관장으로 취임했다.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춘광 서울 서초사암연합회 회장은 15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월드컵 성공기원 연합대법회'에서 법문했다.

'염불선과 일상생활' 설명
주경 강릉 성원사 주지는 20일 부산 금강사 대법당에서 '염불선과 일상생활'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했다.

성도재일 기념법회 봉행
부불 천안 천불사 주지는 17일 천불사 대법당에서 부처님 성도절 기념 및 월드컵 개최 성공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일류산업대학 교류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6일 총장실에서 일본 류슈산업대학(총장 야마사키 요시아키)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경주 동국대 부총장 취임
김영중 동국대 사회과학 대학원장(행정학과 교수)은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제자 마련 고회연 참석
김명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자와 지인들이 마련한 고회연에 참석했다.

청호불교문화원 이종대 이사장
동미화학공사의 창업자이자 청호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인 이종대 씨가 16일 향년 87세에 별세했다. 이종대 이사장은 91년 재산을 회사해 (재)청호불교문화원을 설립, 불교경전강의와 문화·복지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불음포교의 현장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미래를 내다보며, 임오년 말미 해를 띄고 있는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 안병길 씨(44·지휘자).

지난 1988년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의 노래 지도를 맡은 것을 계기로 불교음악계에 발을 들여 놓은 안씨는 요즘 삼보불교음악협회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신도용 찬불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1300여곡의 찬불가 가운데 음악성과 대중성이 뛰어난 400곡을 엄선해 한권의 책으로 담아내는 불사의 실질적인 총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신도용 찬불가>는 삼보불교음악협회가 2000년 발족할 때부터 발원해온 불사로



400곡 엄선 4월 신도용 찬불가집 출간

지난해 3월 김동환 교수(중앙대 음대), 정부기 교수(중앙대 음대), 이상규교수(한양대 음대) 등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작업을 해왔다. 안씨는 편찬위원들을 도와 이 불사의 원만한 화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한몫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하루아침에 불교음악의 대중화가 이뤄지겠습니까? 대중가요도 그렇듯이 많이 불려져야 좋은 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찬불가가 많이 불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도용 찬불가>의 제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사찰 법회나 행사에 가보면 이렇다할 찬불가 교본이 없어 다들 악보와 가사를 복사해 들고 다니기 일췌였거든요. <신도용 찬불가>가 제작되면 모든 사찰에서 (법요집)을 사용하듯 법당 한편에 이를 비치해 놓고, 법회나 행사 때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안씨는 <신도용 찬불가>가

첫 선을 보이는 오는 4월 11일 세종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는 동시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 음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안씨가 추진하는 일은 '불교음악회관' 건립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인 운문스님이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기증한 서울 구기동에,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불교음악회관을 세우는 것. 삼보불교음악협회 전 회원과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될 이 불사 역시 안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불교음악 자료실 겸 연구소로 사용될 불교음악회관이 완공되면 모든 불교음악인이 불교음악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불교음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도록 꾸려나갈 계획이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총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안씨는 서울 수유리 보광사와 혜화동 영산법회사, 경기도 안양 지장선원 등의 합창단 지휘자로도 바쁘게 뛰고 있다.

"예전과 달리 스님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찬불가를 지도해 줄 지휘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하는 안씨는 "하지만 전국 400여개 이르는 사찰 합창단에 비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가 200여명 정도에 불과하고, 게다가 지도자로 활동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형태"라며 뼈아픈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지도자 육성 또한 시급한 과제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안병길씨는 올해 삼보불교음악협회 차원에서 지도자양성을 위한 교양강좌와 세미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국불교 더 알고 싶어요”

티베트 가초 스님

최고의 티베트 스님이라는 라마 예시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서양인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75년 네팔 카트만두에서 라마 예시 스님을 친견하고 의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출가했다는 스님의 이력도 이채롭지만, 라마 예시 스님이 입적에 앞서 티베트 불교계의 최대 종파인 겔룩파의 고승 조빠 린포체에 "가초의 공부를 점

래도록 전하고자 했던 스승의 뜻을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초스님에 따르면, 몽골불교는 70년 남짓 공산 치하에서 5개 사찰에 1~2백 정도의 스님만이 남아 있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스님은 "몽골인들은 13세기에 티베트 불교를 수용한 이래 대부분 불자들이"라며 "그런 곳에서 불교를 새롭게 꽃피우는 게 스승의 유지"라고 설명했다.

스님의 방한(訪韓)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됐다. 한국 불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 '신비감'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고 싶었던 것이다. "화계사 용맹정진에 참여한 후 더욱 알고 싶은 한국불교가 되었다"는 가초스님은 대원사 현장스님의 초청을 받아 17일부터 송광사 등 전남 일대의 사찰을 방문하고 이달 말 몽골 카라쿠름으로 출국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티베트불교와 한국불교 모두 사뭇 생각으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데서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일 한국을 처음 방문한 눈썹은 티베트 가초스님(68호주 멜버른 타라교육원장·사진). 동안거 기간을 맞아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되는 화계사 국제선원의 용맹정진 대열에 4일간 동참한 스님은 "지리적으로 먼 두 나라의 불교지만 수행자로서 추구하는 지향점은 똑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초스님은 미주, 유럽대륙에서 20세기

전직 의사... 화계사 용맹정진 대열에

김해 달라"는 당부를 할 정도 애제자이다.

"개원 20여년 만에 호주 멜버른에서 최고의 티베트불교 교육도량으로 키운 타라교육원을 뒤로 한 채 99년 몽골 카라쿠름에 불교센터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스승의 특별한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초스님은 "이는 티베트로 한정된 불교가 아닌 불법을 오



불교역사기념관 사업 협조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4일 청와대자화 이기호(경제수석·사진) 회장의 예방을 받고, "경제와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었다"며 "한국불교역사기념관 사업과 템플스테이 사업 등 종단 일에 마음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사찰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마음 공부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주 법제처장관도 이날 정대 스님을 예방했다.

“禪齋 첫선...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승무예능 보유자 이애주 서울대 교수



대 주부 등 24명의 불자들이 꾸미는 이번 발표회에는 하늘과 땅에 예를 올리는 '예들이기', 전통의 소리와 춤이 만나는 '소리춤선' 등과 '우리춤기원' 그리고 불교전통의 법패인 '바라춤' 등이 시연된다.

31일 동산불교회관

지난해 염불만일회와 백담사 축전 때 출공양을 올리기도 한 이 교수는 "다들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대단했다"며 "함께 선율을 연습해 이렇게 발표회까지 열게 되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앞으로 "불교사상과 우리의 몸짓이 만나는 선춤이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일불 선교종 신년하례 법회

일불선교종은 15일 인천 동안사에서 '임오년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무찰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동봉스님, 종회 부의장 명종 스님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동봉 스님은 "올 한해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 일반 불자는 물론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성 포교에 나서자"고 말했다.

2002년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논문발표 신청지

경성, 난타라나, 능화, 명담, 명성, 법해, 분각, 성문, 소연, 수산, 수암, 수정, 승원, 심원, 원경, 원과, 원철, 인경, 일돈, 일문, 정각, 정운, 중명, 중범, 중석, 중호, 진철, 태경, 해주, 현광, 현성, 혜선, 혜정정사, 호탄(스님, 가나다순)

강명희, 강찬국, 고영섭, 권기중, 권오민, 김경진, 김광원, 김도공, 김무봉, 김방홍, 김복순, 김상현, 김신근, 김성수, 김성장, 김성철, 김승호, 김은정, 김양순, 김영재, 김용표, 김은정, 김재성, 김창수, 김천학, 김철, 김치은, 김태훈, 김항배, 김현남, 김호규, 김호성, 김화, 노권용, 류효현, 목정배, 문무왕, 박경준, 박광수, 박상수, 박상준, 박서연, 박선영, 박성철, 박수호, 박영기, 박영길, 박인식, 박해당, 박화문, 배규범, 백도수, 백진순, 사토 아츠시, 서인원, 서재영, 석길담, 송성숙, 송영아, 송인성, 신구탁, 신성현, 양은용, 오지연, 원병관, 유승무, 유옥영, 윤기엽, 윤영해, 은정희, 이거룡, 이광우, 이기운, 이덕진, 이병욱, 이봉순, 이은경, 이자랑, 이재수, 이재현, 이정수, 이정희, 이종철, 이종표, 이지수, 이태승, 이평래, 이학주, 이현욱, 이호근, 이효걸, 이효기, 이희재, 임상희, 임영정, 장규언, 장희정, 전운연, 진중식, 진중배, 정기문, 정명애, 정병삼, 정승식, 정영근, 정계경, 정우영, 조기룡, 조승미, 조용현, 조준호, 조현준, 지창규, 차상엽, 차승후, 차치석, 최기표, 최동순, 최성철, 최인숙, 최중석, 키츠가와 토모야키, 하정용, 한중광, 한지연, 한해운, 허일범, 홍대한, 황인규(제가자, 가나다순)

이상 164명 (2002. 1.9일 현재)

위 학인들은 한국불교학을 위해 2002년 5월 3~4일 결집대회를 개최합니다.

①발표를 원하는 분은 아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홈페이지 주소 www.skf.or.kr 전화 02)2260-3121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 목정배

新年辭

임오년(壬午年)이라 칭(稱)하니 임오년이요
새해라 칭하니 새해라
근본은 오고, 가고라는 것이 없는 것이니
어디 생(生)이 따로 있고 사(死)가 따로 있으며
한해가 따로 있고 새해가 따로 있겠는가
다만 임오년이라 칭하니 새해일뿐이요



우리 2천만 불자와 7천만 민족이 화합 단결하여 원융무애사상의 정신으로 조국발전과 웅성한 국가로서 불국정토(佛國淨土)가 이룩되도록 힘을 해입니다.

첫째는 세계월드컵 축구 개최의 해요, 둘째는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지도자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해입니다.

모처럼 세계월드컵 축제가 한국에서 거행됨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해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올해는 언어와 행동, 친절과 봉사로 밝은 동방의 큰나라 한국의 이미지와 기상을 보여줌으로써 행복하고 복된 나라 불국정토 극락세계가 따로 없는 1등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해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기와 아집, 고집과 분별심을 놓아버리고 자비와 화합의 협동정신으로 일치 단결하여 웅성하고 풍성한 한해가 되기를 원하고 바랄 뿐입니다.

불자와 국민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따듯하고 복(福)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회암 합장